



읽는 사람이 세상을 이끈다 Readers are Leaders

회원사 기자 71명 일일교사로 학교 찾아간다

5~11월 전국 120개교 방문해 신문활용교육(NIE) 실시

신문협회 27개 회원사 기자 71명이 일일 선생님이 되어 학교 현장에 찾아간다. 전국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신문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진로 설계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다.

신문협회는 4월 중순 ‘신문기자 진로탐색’ 프로그램에 참여할 전국 120개 학교를 선정하고 학교별로 회원사 기자를 배정(표)했다.

서울 지역은 28개 초·중·고등학교에서 경향신문 등 18명의 기자가 수업을 진행한다. 경기 지역은 15개 학교에 경기일보 등 9명, 강원 24개 학교에 강원도민일보 등 12명의 기자가 참여한다.

충청 지역은 24개 학교에 중도일보 등 12명, 경상 지역은 15개 학교에 경북매일신문 등 9명, 전라 지역은 10개 학교에 광주일보 등 8명의



지난 2025년 5월 28일 헤럴드경제 최정윤 기자가 서울 진선여자중학교에서 신문기자 진로탐색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기자가 수업한다. 제주에는 4개의 학교에 제주일보 기자 3명이 수업을 진행한다.

이 프로그램에 일일교사로 선정된 기자는 각 지역 학교 교사와 강의 일정, 주제 등 세부 내용을 협의·확정한 후 순차적으로 수업을 실시

한다. ‘신문기자 진로탐색’은 해마다 학생들이 자신의 꿈과 진로를 탐색해 볼 수 있도록 신문협회 회원사 기자들이 일선 초·중·고등학교를 방문하는 수업 프로그램이다. 구체적으로 △직업으로서의 기자

△신문을 활용한 진로탐색 △기사 작성법 및 신문 제작 과정 △신문을 활용한 리더십 교육 등을 주제로 수업한다.

수업은 총 2시간으로 강의 1시간과 체험 1시간으로 구성되고 1차시 이론 수업(신문 및 신문기자

에 대한 이해 등)와 2차시 실습 수업(기사작성, 신문제작 등 활동)으로 진행된다. 참여 학생들은 진로 탐색의 기회와 리더십 능력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이번 프로그램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이 후원한다.

지역	방문학교 (120개교)	기자 (71명)	참가 회원사 (27개사)
서울	28	18	경향신문, 내일신문, 동아일보, 문화일보, 스포츠조선, 전자신문, 조선일보, 헤럴드경제
인천	14	8	경기일보, 경인일보
경기	1	1	중부일보
강원	24	12	강원도민, 강원일보
대전·충남·세종	17	9	중도일보, 충청투데이
충북	7	3	중부매일
대구·경북	5	5	경북매일, 경북일보, 대구일보, 영남일보
부산·울산·경남	10	4	경남일보, 경상일보, 부산일보
광주·전남	5	3	광주일보
전북	5	5	전북도민, 전북일보
제주	4	3	제주일보

신문 기사 읽고 ‘베스트 요약러’ 도전하세요

신문협회, ‘오늘의 뉴스읽기완료’ SNS챌린지

신문협회가 청소년과 젊은층의 뉴스 읽기 습관과 미래 독자 확보를 위해 ‘오늘의 뉴스 읽기 완료’ SNS챌린지를 전개한다. 참가 방법은 기사를 읽고난 후 핵심 내용을 100자 내외로 요약해 기사 캡처본과 함께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게시하면 된다. 게시물 내

바닥글 또는 댓글에 해시태그 ‘#뉴스오늘완’을 기재하면 참가가 완료된다.

이번 챌린지는 신문에 관심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5월 4일부터 30일까지 4주간 진행한다.

챌린지 참가자들 가운데 60명

(4주간 매주 15명씩)은 ‘베스트 요약러’로 선정해 소정의 상품을 지급한다. 챌린지 기간 중 가장 많이 참여한 10명에게는 최다 참가상도 제공한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신문협회 인스타그램(@koreanassociationofnewspapers)에서 확인할 수 있다.

AI 환경에서 뉴스의 가치·기여 객관적으로 측정한다

신문협회, ‘뉴스의 가치 산정 및 언론사 수익화 모델 구축’ 연구 추진

신문협회는 올해 AI·디지털 환경에서 뉴스의 가치와 기여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뉴스의 적정 보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AI 시대 뉴스의 가치 산정 및 언론사 수익화 모델 구축’ 연구를 추진한다.

책임연구는 이대호 성균관대학교 글로벌융합학부 교수가 맡았으

며, 박유리 순천향대학교 글로벌문화산업학과 조교수, 함민정 日나고야상과대학 경영학부 조교수가 공동연구원으로 참여한다.

AI·디지털 플랫폼 환경에서 유통되는 정보의 상당 부분은 언론사의 최초 보도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나, 그 가치와 기여는 충분히 평가·보상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

이다. 플랫폼 기업의 ‘뉴스 무단 활용’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특히 생성형 AI가 뉴스 콘텐츠를 학습·활용하는 과정에서 적정한 보상 기준이 부재해 언론사와 AI 기업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이번 연구는 AI 생태계에서 뉴스 콘텐츠가 수행하는 경제적·사회적

기여를 규명하고, 이를 토대로 뉴스의 적정 보상 기준과 지속가능한 언론사 수익화 모델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구체적인 연구 내용은 △언론사 기사와 SNS·플랫폼 콘텐츠를 대상으로 정보원 수, 사실 검증 여부, 맥락·배경 설명, 근거 제시 수준 등을 비교 분석하고 △

최신성·공공성·신뢰성·독창성 등에 대한 이용자 평가 조사도 실시한다.

특히 △AI 학습 데이터에서 뉴스 콘텐츠가 차지하는 역할과 중요성을 정성·정량적으로 분석하고 △AI 생태계에서 뉴스의 가치와 기여를 기반으로 적정한 보상 기준과 규

지난해 회원사 총 매출액·영업이익·순이익 일제히 증가

37개 회원사 금감원 자료 분석 결과

지난해 신문협회 37개 회원사의 총 매출액과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이 전년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37개의 회원사 결산 자료를 신문협회가 분석한 결과다. 신문협회 회원사 중 4월 27일 현재 공시된 신문사는 종합일간지 11개사, 전문·경제지 10개사, 스포츠지 2개사, 지역지 12개사, 통신사 2개사 등 모두 37개사.

금감원 자료에 따르면 37개 회원사의 전체 매출은 전년보다 2.56% 증가한 2조 8,380억 원으로 집계됐다. 매출액이 감소한 회원사는 11개사(종합지 4개, 전문·경제지 2개, 스포츠지 2개, 지역지 3개)다. 영업이익은 1,710억 원으로 전년 대비 74.45% 증가했으며, 당기순이익은 전년 대비 110.76% 증가한 2,359억 원으로 조사됐다.

종별로 종합일간지 11개사의 전체 매출액은 전년보다 3.28% 증가한 1조 4,175억 원이다. 매출액은 중앙일보가 3,210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조선일보가 2,893억 원, 동아일보가 2,797억 원 순이었다.

종합일간지의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58.53% 증가해 916억 원, 당기순이익은 11.76% 증가한 1,229억 원이었다. 영업이익률은 7.66%로 전년 대비 1.96%p 증가했으며, 순이익률은 10.34%로 전년 대비 0.04%p 증가했다. 전문·경제지 10개사의 총 매출은 전년 대비 1.4% 감소한 9,272억 원으로 조사됐다. 반면, 영업이익은 9.78% 증가한 721억 원, 당기순이익은 전년 대비 752% 상승한 821억 원이다.

지역지의 매출액은 전년 대비 7.49% 증가한 2,400억 원을 기록했다. 영업이익은 -63억 원으로 지난해 -191억 원보다 적자폭이 줄었으며, 순이익은 89억 원으로 흑자 전환했다. 37개 회원사 중 당기순이익이 연속 흑자인 회원사는 총 24개사로 나타났다.

2025년 신문협회 회원사 매출액·영업이익·당기순이익(단위:백만 원, %)									
구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영업이익률(%)	순이익률(%)	
	2025	2024	2025	2024	2025	2024	2025	2025	
재경 종합지	경향신문	77,370	76,639	5,996	3,877	6,411	5,337	7.8	8.3
	국민일보	52,502	52,785	3,362	1,690	3,777	2,266	6.4	7.2
	내일신문	30,559	28,956	6,833	6,206	7,629	8,208	22.4	25
	동아일보	279,781	271,518	14,455	14,097	17,998	11,935	5.2	6.4
	문화일보	72,428	72,763	4,170	4,014	7,306	7,384	5.8	10.1
	서울신문	87,007	87,567	12,044	7,035	6,965	2,575	13.8	8.0
	세계일보	55,496	54,427	4,240	4,932	4,852	5,754	7.6	8.7
	조선일보	289,351	296,470	21,151	7,528	44,943	44,580	7.3	15.5
	중앙일보	321,038	282,164	17,501	8,868	5,861	-1,024	5.5	1.8
	한겨레	76,082	75,465	545	-1,065	1,580	230	0.7	2.1
전문·경제지	한국일보	75,911	73,797	1,380	645	15,636	22,772	1.8	20.6
	대한경제	15,793	15,841	1,672	1,659	1,211	1,953	10.6	7.7
	매일경제	242,446	234,724	7,506	4,434	11,998	10,656	3.1	4.9
	머니투데이	75,438	74,246	12,133	11,328	9,069	8,120	16.1	12.0
	서울경제	76,139	73,650	9,948	7,821	10,106	4,635	13.1	13.3
	아시아경제	44,992	43,678	5,131	4,707	7,584	-62,834	11.4	16.9
	아주경제	29,963	71,351	4,228	8,070	5,524	6,950	14.1	18.4
	이데일리	44,410	42,831	5,200	4,245	3,489	2,072	11.7	7.9
	전자신문	37,475	36,031	4,867	965	3,630	-783	13.0	9.7
	한국경제	296,965	284,620	13,027	13,712	23,122	31,885	4.4	7.8
스포츠지	해럴드경제	63,582	63,364	8,414	8,760	6,391	6,983	13.2	10.1
	스포츠서울	1,692	8,129	-677	-2,249	-889	-2,621	-40	-52.5
통신사	스포츠조선	18,355	18,742	-1,384	339	-1,070	781	-7.5	-5.8
	뉴스1	45,096	43,996	6,633	5,497	5,167	4,339	14.7	11.5
지역지	연합뉴스	188,103	159,941	9,062	-9,964	18,711	807	4.8	9.9
	강원도민	21,649	19,304	142	-848	311	-568	0.7	1.4
	강원일보	26,614	24,224	125	79	201	120	0.5	0.8
	경기일보	35,063	31,610	999	735	1,112	796	2.8	3.2
	경인일보	19,229	17,309	-817	-2,909	-1,189	-2,165	-4.2	-6.2
	광주일보	6,629	7,085	200	-566	-1,476	-1,767	3.0	-22.3
	국제신문	20,377	20,143	-1,938	-3,845	-2,719	-4,326	-9.5	-13.3
	대전일보	9,573	8,782	542	136	121	-116	5.7	1.3
	매일신문	28,306	28,273	-1,677	-613	-1,507	-915	-5.9	-5.3
	부산일보	38,576	32,416	-4,637	-8,681	14,080	-7,528	-12	36.5
지역지	영남일보	17,673	18,132	-477	-2,962	150	5,914	-2.7	0.8
	인천일보	10,526	10,179	506	187	215	186	4.8	2.0
	전북일보	5,845	5,873	640	184	-354	-643	11.0	-6.1
	총계	2,838,034	2,767,025	171,045	98,048	235,946	111,948		

※출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2025.1.1.~2025.12.31.)

※참고: 1) 스포츠서울은 3월 결산법인(2024.3.1.~2025.3.31.), 2) 백만 원 단위 이하 절사

“전문·독창 보도 및 언론계 공동 협력으로 승부해야”

기조협, ‘제로클릭 시대, 신문의 대응 전략’ 세미나

신문협회 산하 기조협의회(회장 권동형 한국일보 전무이사)는 지난 4월 24~25일 나주 중흥골드스파&리조트에서 ‘제로클릭 시대, 미디어 환경 변화와 언론산업의 대응 전략’을 주제로 세미나(사진)를 개최했다.

발제를 맡은 이현우 한국언론진흥재단 선임연구위원은 “조사 결과, 우리나라 성인의 78%가 주1회 이상 AI 검색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며 “AI 검색 환경에서는 이용자들이 원문 사이트로 이동하지 않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AI로 주로 검색하는

뉴스 분야는 경제·금융, 정치, 사회 순이라고 밝힌 뒤, “연성 뉴스나 가십성 기사는 AI 환경에서 경쟁력이 떨어지며, 경제·금융 분야의 데이터 기반 기사가 유리하다”고 말했다. 특히 “독자들은 언론사에 ‘단순보도’가 아닌 ‘검증’과 ‘발굴’을 요구하고 있다”며 “독자가 매체의 브랜드를 기억하게 만드는 차별화 전략 없이는 AI의 학습데이터로 소비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위원은 저널리즘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4대 전략(표)을 소개했다. 그는 “여러 분야를 넓게 이해하

고 다양한 관점에서 문제를 접근하는 ‘제너럴리스트’에서 특정 분야에 깊이 파고드는 ‘스페셜리스트’ 인재 구조 전환이 필요하다”며 “AI가 대체하기 어려운 콘텐츠에 대한 투자 확대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언론계 차원의 공동 대응 필요성도 강조했다. “뉴스 콘텐츠의 가치 산정 기준을 마련하고, AI 플랫폼에 출처 표시 및 아웃링크 제공을 의무화해야 한다”며, “개별 언론사 단위로는 빅테크 기업과의 협상이 어려우며 언론사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언론사 차원: 미디어 내부 혁신	-전문기자 양성 등 역량 고도화 -AI 학습 장벽 높은 영상·시각 저널리즘에 집중 -AI 플랫폼과 수익 공유 파트너십 구축
언론계 공동 대응: 산업적 연대	-AI 학습 기여도 등에 따른 합리적 가치 산정 -저작권 보호 표준계약서 도입 -집단 협상력 강화로 비대칭 협상 구조 해소
정부·공공 영역: 제도적 기반	-AI 생성물 출처 표기 등 관련 법 정비 -소규모·지역 언론 대상 차등적 정책 지원 -언론사 공동 뉴스 포털 구축 등 공익적 인프라 구축
이용자 차원: 시민 역량 강화	-환각 현상 등 정보 왜곡에 대한 생성형 AI 한계 인식토록 해야 -기사 원본 직접 확인 습관 형성 유인 -출처 교차 검증으로 비판적 수용 능력 향상 -저널리즘의 사회적 가치 이해 제고

이 위원회는 끝으로 “정부와 공공 영역의 역할도 중요하다”며 “AI 기업의 뉴스 콘텐츠 활용 시 출처 표기를 의무화하는 등 관련 법·제도 정비와 함께, 지역 및 중소 언론사를 위한 기술 인프라 지원이 필수”라고 덧붙였다.

경영지원협, 정기총회서 올해 사업 확정

신문협회 산하 경영지원협의회(회장 장철환 서울경제 이사)는 지난 4월 17일 메종 글래드 제주 호텔에서 2026년 정기총회(사진)를 개최하

고 2025년 사업보고 및 결산과 2026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심의했다. 경영지원협은 올해 △신문제작 원자재(신문 용지, 폐지, 유가 등)

가격 변동 대응 △정년 연장·산업 안전·포괄임금 등 인사 제도 변경에 따른 전략 모색 등을 올해 주요 사업으로 추진한다.



참여 저널리즘 부상...뉴스를 '읽는 독자'에서 '만드는 독자'로

세계신문협회(WAN-IFRA)는 지난 4월 1일 저널리즘의 핵심 가치가 단순 정보 소비에서 '독자의 실질적 참여와 기여'로 이동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이를 위한 실행 전략을 소개했다.

독자 의견을 기사에 반영하면 체류 시간·재방문을 높여

대부분의 언론사는 댓글, 이메일, 소셜미디어 답글, 혹은 일회성 참여 요청 등 다양한 형태로 독자의 참여를 유도한다. 하지만 독자는 실질적인 '보상'이 부족해 주저하고, 뉴스룸은 소통에 필요한 '비용과 노력'의 부담으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구조적 모순이 존재한다. 이러한 시스템과 보상의 결핍은 결과적으로 참여도가 점차 하락하는 역설적인 상황을 초래한다.

따라서 언론사는 독자가 낸 의견이 실제 기사가 되는 경험을 통해 효능감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

지역 언론사는 지역사회와 가장 밀접하게 맞닿아 있어, 참여 시스템의 효과를 즉각 얻을 수 있다.

독자 참여 시스템, 언론사 신뢰 회복과 비즈니스 성장 동력 WAN, '독자 참여' 강화 전략 소개

벨기에 미디어그룹 미디어하우스(Mediahuis) 산하의 여러 지역 뉴스룸은 기상 이변, 주택 개발, 교통 변화 등 구체적인 뉴스 수요가 발생할 때마다 독자들에게 사진이나 경험, 지역정보를 정기적으로 요청했다.

기자들은 이렇게 수집된 데이터를 기사 전반에 전략적으로 재사용하고, 참여 독자에게 가시적인 크레딧(성명이나 아이디 표기 등)을 부여한다. 이는 저널리즘이 단순히 지역사회의 소식을 일방적으로 전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와 '함께' 뉴스를 생산하고 완성해 나가는 협력적 모델로 진화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참여형 기사는 일반 기사보다 페이지 체류 시간이 3~10배 높고, 재방문율은 6배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독자 참여가 언론사의 강력한 성장 동력인 것으로 입증됐다.

독자의 기여에 대한 피드백 제공해야
독자가 의견이나 개인적인 경험을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뉴스룸으로부터 아무런 피드백을 받지 못한다면, 그 독자는 다시는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러한 '낭비된 참여'의 반복은 언론사에 대한 독자의 신뢰를 저하시키며, 참여 동기 자체를 소멸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참여의 지속성은 언론사가 독자의 기여를 인정하고 가시적으로 노출하며 적절한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에 달려 있다. 자신의 참여 내용이 매체에 가시적으로 게시된 독자 중 약 20%는 정기적으로 재방문하는 충성 독자가 됐다.

네덜란드의 한 언론사는 매년 가을마다 독자들에게 주변의 버섯 사진을 공유해달라고 요청한다. 이는 독자들이 부담 없이 뉴스룸의 문을 두드릴 수 있는 '낮은 진입 장벽'의 참여 방식이다. 과거에는 이

메일로 받은 사진 중 몇 장만을 골라 일회성으로 게시하는데 그쳤으나, 최근에는 모든 독자의 사진을 활용하도록 했다. 또 누구나 실시간으로 다른 독자의 사진을 감상하고 '좋아요'를 누르거나 공유할 수 있는 '라이브 갤러리' 시스템을 도입했다.

그 결과, 다른 사람들의 참여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게 된 독자들은 자극을 받았고, 사진 제출 수는 이전보다 5배 급증했다. 페이지뷰는 전년 대비 6배나 상승했으며, 일반 기사보다 4배 높은 체류 시간과 7,500개 이상의 '좋아요' 및 공유를 기록했다.

참여를 주저하는 관찰자 90%에게 긍정적 인식 제고

디지털 플랫폼의 행동 데이터에 따르면, 온라인 커뮤니티 사용자의 약 90%는 콘텐츠를 소비하기만 하는 관찰자이며, 약 9%가 간헐적

로 참여하고, 단 1%만이 정기적으로 기여하는 구조를 보였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직접 응답하지 않는 90%의 독자들 역시 뉴스룸이 독자에게 정기적으로 질문을 던지고, 독자의 목소리를 보도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을 실시간으로 인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에 따라 미국 지역일간지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San Francisco Chronicle)과 같은 언론사들은 공공 예술, 스포츠, 도시 계획, 지역 정책 등 다양한 시민적 이슈 보도에 독자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왔다. 특히 크로니클은 모호한 질문 대신 특정 주제를 선정하고 독자의 참여를 유도했으며, 수집된 독자의 의견을 보도 과정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배치했다.

그 결과 독자 참여가 활발한 토론 페이지를 방문한 독자의 2.76%가 뉴스레터 구독으로 전환됐다. 이는 참여 요소가 없는 일반 기사의 뉴스레터 전환율인 0.01%와 비교했을 때 276배에 달하는 수치이다.

'긍정 뉴스'와 '데이터'로 광고 수익 창출한 美 지역 언론사

국제뉴스미디어연합(INMA)은 지난 4월 1일 전통적인 광고 수익 모델을 넘어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한 미국 지역언론 사례를 소개했다.

미네소타 스타 트리뷴

미네소타 스타 트리뷴의 디지털 광고 부문 책임자인 브라이언 케넷(Brian Kennett) 부사장은 최근 INMA 웨비나에서 지역사회와 갈등 상황 속에서 광고 전략을 재구축한 방법을 공유했다.

당시 미네소타는 미국 이민세관 단속국(ICE)의 집중적인 단속과 이로 인한 대규모 시위, 인명 사고 등 비극적인 사건들이 잇따르며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다. 케넷 부사장은 뉴스 보도가 사회적 갈등이나 비극적인 사건 등 무거운 주제에 집중될 경우, 광고주를 유치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에 주목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케넷 부사장이 밝힌 첫 번째 핵심 전략은 브랜드 콘텐츠 플랫폼인 'MN 라이징(MN Rising)'을 통해 지역사회의 긍정적인 변화를 집중 조명하는 것이다.

미네소타주는 미국 내 자원봉사 참여율 3위이자, 2025년 기준 '자선' 관련 구글 검색량이 세 번째로 많은 정도로 지역사회의 긍정적 가치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점에 주목했다. 미네소타의 많은 기업이 훌륭한 지역사회 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음에도 이를 대외적으로 알릴 기회가 적다는 점에 착안해, 이들의 선한 영향력을 기록하고 전달할 전용 공간을 마련했다.

스타 트리뷴은 직접적인 제품 홍보나 마케팅 용어 사용을 지양하고, 기업이 지역 공동체와 함께 만들어낸 가치 있는 변화를 진정성 있게 전달하는 데 주력했다. 아울러 독자가 오인하지 않도록 모든 콘텐츠에는 광고 표기를 명시해 저널리즘의 신뢰도와 상업적 콘텐츠의 경계를 분명히 했다.

그 결과 작년 10월 말 출시 이후 단기간에 40개 이상의 후원사를 확보했다. 특히 후원사 중 상당수가 지난 수년간 스타 트리뷴과 거래가 없었던 신규 브랜드들이라는 점에서 새로운 광고주를 유치하는 데 성공했다.



고등학교 스포츠 브랜드 '프렙 스포츠' 웹사이트 화면. 지역 학교 스포츠 경기와 선수 관련 뉴스를 제공하고 있다.

케넷 부사장이 공개한 두 번째 전략은 자녀와 이웃, 학교를 중심으로 뭉치는 미네소타 주민들의 강력한 유대감을 바탕으로, 고등학교 스포츠 브랜드 '프렙 스포츠(Prep-Sports)'<사진>를 구축한 것이다. 이는 고품질 라이브 스트리밍과 영상 중심의 스토리텔링을 통해 경기 현장의 생동감을 독자들에게 전달한다.

이 전략은 광고 수익뿐만 아니라 디지털 구독 성장을 견인하는 강력한 동력이 됐다. 단 한 번의 여자 아

이스하키 경기 중계만으로 1,000건의 신규 유료 구독을 확보했다. 이러한 지역 연대 커뮤니티 전략은 스타 트리뷴을 떠났던 전국 단위 광고주들까지 다시 불러들이는 강력한 수단이 됐다.

플로리다 지역 매체 선-센티널과 올랜도 센티널

플로리다를 대표하는 미디어그룹 '선-센티널'과 '올랜도 센티널'의 이용자수는 약 1,250만 명으로, 플로리다 전체 인구의 절반

을 차지한다. 두 매체의 광고 부문을 총괄하는 데이브 카라박(Dave Karabag) 부사장은 종이신문 독자 수 감소에 대응해 종이신문과 디지털 구독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플랫폼을 아우르는 '통합 독자층(Single Audience Base)' 전략을 추진했다.

또 이들 매체는 독자로부터 직접 수집한 데이터인 '퍼스트 파티 데이터(1st Party Data)'를 기반으로 스포츠 팬, 크루즈 여행객, 테마파크 방문자 등 특정 관심사를 가진 독자층을 분류한 후, 관심분야를 반영한 개인맞춤형 광고 콘텐츠를 제공했다.

구독 수익을 증가하기 위해 새로운 상품 개발보다 기존 상품의 배포 전략을 개선하는 전략도 추진했다. 여행 잡지 브랜드 '익스플로러 플로리다(Explore Florida)'는 종이 부문 수익이 하락하자 디지털 독자를 늘리는 데 집중했다. 현재 이 잡지는 전국 트리뷴(Tribune) 전자판에 포함돼 160만 명의 구독자에게 제공되며, 여행에 관심있는 이용자 50만 명에게 이메일로 배포된다.

신문협회, 디지털 저널리즘 실무 연수 실시

5월 19·20·28일 3개 세션으로 신문협회는 회원사 소속 기자 및 디지털 실무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오는 19~28일 '디지털 저널리즘 역량 강화' 실무연수를 실시한다. 이번 연수는 디지털 콘텐츠 제작 기술 및 데이터 기반 저널리즘 분석 방법에 대한 실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

다. 특히 이번 연수는 사례 중심의 강의와 함께 참여자가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간단한 실습을 병행해, 교육의 효과성과 운영의 효율성을 꾀한다. 연수는 생성형 AI 기반 기사 작성 툴 활용, 인포그래픽 및 데이터 시각화, 노트LM 등 AI 기반 취재·정리 도구 활용을 주제로 3개 세션으로 진행

일시	세션	강사
<세션1> 5월 19일(화) 14:00~16:00(120분)	생성형 AI 기반 기사 작성 툴 활용	김주성 한국일보 디지털노베이션부부장
<세션2> 5월 20일(수) 14:00~16:00(120분)	인포그래픽 및 데이터 시각화	김수진 동아일보 뉴스디자인팀팀장
<세션3> 5월 28일(목) 15:00~17:00(120분)	노트LM 등 AI 기반 취재·정리 도구 활용	최영준 구글 뉴스랩 티칭펠로우

된다. 강사는 김주성 한국일보 디지털 이노베이션부부장, 김수진 동아일보 뉴스디자인팀팀장, 최영준 구글 뉴스랩 티칭펠로우가 맡는다. 연수는 온라인(Zoom)으로 진행된다. 참가비는 신문사당 10만 원이며, 참가 인원은 제한이 없다. 신청은 오는 15일까지 신문협회 사무국으로 하면 된다.

서울경제, WAN 디지털미디어어워드 아시아 부문에서 금상·은상 수상



서울경제(발행인 손동영)는 지난 4월 28일(현지시간) 세계신문협회(WAN-IFRA)가 주관하는 디지털 미디어 어워드(DMA) 아시아 지역 부문에서 금상 2개와 은상 1개를 수상했다.

서울경제는 이날 8개 독자 유형별 개인화 뉴스레터인 'AI PRISM'으로 '최고의 뉴스레터' 부문 금상을 받았다. 또 AI 기반 뉴스 통합 플랫폼 'AI LINK'로 'AI 주도 뉴스 혁신' 부문에서도 금상을 수상했다. 기자 업무지원 도구인 'AI NOVA'는 '가장 혁신적인 디지털 제품' 부문에서 은상을 받았다. WAN-IFRA DMA는 매년 전 세계 언론사를 대상으로 디지털 미디어 혁신의 정점을 가리는 대회다. 올해는 전 세계 78개국에서 출품된 811건의 작품을 두고 25개국 60명의 글로벌 미디어 전문가가 12개 부문에서 심사를 진행했다. 금상 2개 부문은 오는 6월 프랑스 마르세유에서 열리는 글로벌 본선에 진출한다.

회원사 동정

경기일보, '2026 고양 전국마스터즈 수영대회'

경기일보(발행인 이순국)는 오는 30~31일 고양체육관 실내수영장에서 '2026 고양 전국 마스터즈 수영대회'를 실시한다. 경기종목은 △개인경기(자유형, 배영, 평영, 접영, 개인혼영) △단체경기(계영, 혼성계영)이다. 참가 신청은 9일 오후 4시까지 경기일보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모집 인원은 선착순 700명이다.

대한경제, '2026 대한경제 공공포럼' 개최

대한경제(발행인 유일동)는 오는 12일 오후 2시 건설회관 중회의실에서 '2026 제3회 대한경제 공공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AI, 건설의 판을 바꾼다'를 주제로 △공공조달의 'AI 대전환' 로드맵 △건설기업의 AX 대응 전략 △공공건설 AX를 위한 과제 등이 발표된다. 문의는

02-3485-8438.

동아일보, '2026 동아국제금융포럼'

동아일보(발행인 임채청)는 오는 14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 2층 크리스탈볼룸에서 '창조적 파괴의 시대, 혁신금융의 길'을 주제로 '2026 동아국제금융포럼'을 개최한다. 올해는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피터 하위트가 교수로 창조적 파괴에 대해 강연한다. 참가비는 100만 원이며 홈페이지(www.dongainsight.com)에서 신청 가능하다. 문의는 02-6380-7258.

매일경제, 산재예방 아이디어 '솜포' 공모

매일경제(발행인 장승준)는 오는 15일까지 '산재 예방 아이디어 솜포 영상 공모전' 작품을 공모한다. 주제는 △추락재해 예방 △핵심 안전 수칙

△위험성 평가 및 우수사례 △기타 안전 활동 등 산재 예방을 위한 아이디어 등이다. 시상 부문은 △최우수상(1점) △우수상(2점) △장려상(5점) △참가상(20명, 사업장 1개소)이다. 영상 길이는 1분이며 제출 및 문의는 공모전 홈페이지 www.safety-idea.co.kr 참고.

부산일보, '2026 대한핸드볼협회장배 전국 초중고등선수권대회'

부산일보(발행인 손영신)는 오는 8일까지 경남 고성군 국민체육센터 실내체육관에서 '2026 대한핸드볼협회장배 전국 초중고등선수권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대회에는 전국의 핸드볼 명문 67개 팀이 출전한다. 부문은 △초등부(남, 여) △중등부(남, 여) △고등부(남, 여)이다. 경기 일정은 대한핸드볼협회 홈페이지(www.handballkorea.com)에서 확인 가능하다.

인사

울산매일신문 새 발행인에 이동엽 관리이사



울산매일신문은 지난 3월 31일 주총회를 열어 새 발행인에 이동엽 관리이사(사진)를 선임했다.

학력 △일리노이대학교 통계학과
 약력 △울산매일신문 전략이사·관리이사 △한국신문협회 디지털협회 이사·부회장 △사랑의열매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 이사 △울산광역시 체육회 이사

일간신문 및 뉴스통신 기사 131건, 광고 27건 주의 결정

신문윤리위 4월 심의 결과

신문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는 지난 4월 8일 제1,007차 회의를 열고 신문협회 회원사의 기사 131건과 광고 27건에 대한 신문윤리강령 등 위반으로 각각 '주의' 결정을 내렸다(표).

4월 기사 및 광고 심의 현황

일간신문 및 통신	구분	건수	
		주의	경고
일간신문 및 통신	기사	131	0
	광고	27	0
온라인 신문	기사	265	0
	광고	67	0

신문협회보

발행인 박장희
 편집인 정우현
 제작 한국신문협회
 발행처 서울 중구 세종대로 124 프레스센터 1302호
 인쇄 삼아인쇄
 창간일 1985년 4월 15일
 등록번호 서울, 다50673
 대표메일 webmaster@presskorea.or.kr

**알고리즘 너머
진짜 세상을 읽다**

알고리즘이 대세로 변한 지금에도 세상을 읽어내는 신문의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알고리즘이 걸러낸 세상이 아닌, 있는 그대로의 세상을 만나는 방법, 바로 신문입니다.

한국신문협회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n Association of Newspapers Korea Press Foundation